



感應篇
卷三

ハ 6
2476
3



2476
5-3



太上感應篇圖說卷之三目錄

太監惡報

魚朝恩

劉瑾

吏書善報

趙秉忠之父

顧佐

吏書惡報

陳生

張益

士人善報

徐階

薛玠

董朴

俞良臣

羅倫

劉理順

李泌

張畏巖

士人惡報

劉徹

李登

左蹕

浙中舉子



京口張姓 蘇大璋 南昌士子 王武 祝期生

農人善報

陳孟玉

農人惡報

張若水

工人善報

安民

商人善報

尤翁

南貨店人

李珏

真州商人

商人惡報

段廿八

俞翺

木客

金陵船戶

徐淹

白元通

湖廣盛某

魚朝恩



唐郭子儀有興復之功魚朝恩為觀軍容使忌子儀值相
 州軍潰極口詆譖肅宗罷郭兵柄居於京師魚又與元振
 交攻之必欲加以竄逐帝疑未釋郭憂甚會吐蕃陷京師
 卒得郭力再安社稷以勲名終朝恩元振皆以專恣伏誅
 當나라환관어조은이은총을밋고권세를오로지함여상인
 히물함기름즐기더니관군용스버슬함여과스의공을의괴함
 여속중의참소함여스의병권을아스경스로보내고또원진
 으로더부러빅가지로휘방함여부디말니취향보너러함니
 상이조은스의름의심함샤쾌히샤키아니시니희외스못의
 리함지라스의심히근심함더니마초아토번의난을만나정식
 함물함지라스의힘으로스직이드시평안함니스의노공함은으
 로써일함음이현말함고조은과원진은마침니버히나라

劉瑾



正德中琉球進玉脂燈臺盛油一兩燃可十夜光焰照人
毫髮風雨塵埃皆不能侵行幸處必攜之駕幸香山寺劉
瑾竊以自照燈忽放花如人面耳目畢具瑾乃暗囑曰我
成大事封汝為天下光明大元帥花即凋萎作咤噫聲飛
越數尺濺瑾衣袍其油暈處氣腥如血瑾以金如意碎之
未幾以謀逆伏誅

정덕년 중의 환관 유근의 위인인 홍광학의 힘으로 교회를 방조하
야 상히 불케지심은 품엇더라 이석의 유구국이 옥등잔 하나
흔진공하니 기름은 냥중을 혀면 능히 열흘이 되도록 불
으며 사람의 러러를 비치고 풍우와 틈틈이 능히 침노리 못하
니 상이 크게 사랑하사 거동하야 가는 곳마다 반드시 가지고 가시
더니 일일은 상이 향산사의 현현을 싣세 유근이 그 등을 도둑

여 스스로 불을 혀고 보더니 홀연 등의 처 섰치워여 사람의 얼
골 못치 되엇거늘 유근이 의가 마니 벌어들 오디니 만일 죄
를 닦으려거든 너를 봉양하야 천하 광명디 천수를 누리리라
라 하니 그 섰치 문득이 우려쳐 말은 고슬픈 소리를 지으며 벌니
썩여니 다라 유근의 오서 처러 저니 기름이 못느 곳마다 비린니
나고 피워 린듯하거늘 유근이 노하야 금여의로 쓰려브 아질너
더니 그 후의 유근이 반하라 타가 버히니 비되니라

趙秉忠之父



萬曆戊戌科壯元趙秉忠之父某作邑椽有龍蔭指揮繫
 冤獄趙力出之指揮極感愧無所報請以女奉箕箒趙搖
 手曰此名家女使不得強之又搖手曰使不得畢竟不從
 其子上公車途有推其輿者曰使不得的中壯元如是者
 再及第婦語其父太息曰此二十年前事吾未嘗告人
 何神明之告爾也

만년 무술년과거 장원도 병충의 아버일은 죽고 을 아전이 되엇더
 니쳐의세습봉작으로지휘부슬흔사람이이씨의미이오그의잡
 혀는지라 병충의 아버원 통음을알고힘써벗겨백방케하니
 지휘감은각골하여갑흔길업는지라 스스로슬을죽어그안히
 를삼으라흔뒤 병충의 비손을쳐어골오디이름명문거주이니
 힘부드르기로다하니지휘득지아니하야어지로권하니손을쳐

어왈 眞부득이라 하고 필경 취리아니 하여더니 그아 들 병충이 과
 거보라 경수로 갈식 홀연 홀사름이 슈리를 밭며 오디히 부득이
 가이 번장원호리로 다 호기를 두어 번외 오간 뒤 업스니 고이히 더
 이고 호호 그 뜻은 아지 못하더니 밭장원호고 도라와 그아 비드려이
 말을 고후니 기벽탄 식호여 큰오디 이는 이십년 전 석라 님일 즉
 사름드려 고리아니 하여서 거늘 엿지 신명이 너드려 고후 여스고 호
 더라

顧佐



太倉州吏顧佐嘗以送官至城外賣餅江家時江被讎誣盜下獄佐知其冤為訴之官得釋江夫婦攜其女年十七甚美至佐家曰無以為報願以此女為妻佐固却之其後江益貧鬻女於商久之佐滿考赴京撥某侍郎衙門辦事一日佐以事至侍郎私寓值侍郎他出佐坐堂檻候之其夫人偶出亟趨避夫人一見即令名之惶恐跪階下夫人曰起君非太倉顧提控乎識我否顧愕然乃曰身乃賣餅女也鬻之商商以女畜之嫁充相公副室尋繼正室每恨無由報德侍郎歸夫人語之曰仁人也竟疏上其事明孝宗以佐為禮部主事後至顯官

는강자의집의년년이씨강기이미이사금의무함은비되어도적이라함여옥중의갓치잇는지라고죄그원동은줄알고관가의알외여빅방함어터니강가의부빅감격함여죄의셔은드라고죄의집의년년그셔의나히심치어이오심히아름다온지라고죄러년년오디은혜를심각함여감흔바를아지못함오년원컨디이셔은드러쳐바은삼아지라함거늘고죄구이스양함야물니쳐서더니그후강기더욱가난함여그셔은상고의게파라스느니라고죄과만이츠미경스의도라와시랑아문의슈침이되어더니일은무슨년이잇서시랑의지비의나아가니맛츄시랑이출입함여업느니라고죄시랑의집년간안함의안쳐기러더니문득시랑의부이나아오거늘놀나급히외호더니그부인이호변보고인함여불너제하의년년부인이년오의거려보니

곳릭창고제공이로소니 가히날은아는나고죄아연하여아모
 리를줄모로거늘부인왕나는곳혁과던강시의뜰이라기시
 상공의게팔년터니그상리날을뜰노정영여기르다가사랑
 상공의게의집보닉여부신이되엇더니지금의정신이기체
 후미날노췌정신을삼앗느니라미양그릭의산은히덕을
 가남을길이어버쳐심히한후더니라고밋사랑이르러오미부
 인이전후슈말을고후니사랑이르러오척이사름은진것어
 진사름이라후고즈시상소후여그년은버리히니후고췌이드
 르시고괴특이닉이샤고죄로베네부죽스벼슬을후이시고그
 후의벼슬이점현달하여형환의니르니라

陳生



松江華亭縣蠹吏陳生者不問事之曲直輕重惟狐假虎
威貪財肆惡常帶一便袋每事卽納其中旣死其家人夢
曰我已在湖州歇山寺爲犬家人驚慘詣寺問之犬聞家
人至急避於僧寮榻下意若羞赧家人竟不得見而去僧
語犬曰陳相公你家人去矣卽振尾而出腹下垂一物狀
若便袋上下有皮條周匝繫腹隱隱可辨

화정현의진성이라하는아전이이스니성품이간스교악하
여범스의시비구직과스채경중을헤지아니하여지물만
람하고상히천디하나를몸의츠고단니며온갓거슬다
천디속의너흐니그함음은가히알니러라오리지아니하
여죽엇더니제집사람의꿈의보여말하여왈니이제호
주힐산스의잇서리가되엿노라하거늘가인이불나고차악

하여급히그천의가츠보니그리척의집사람의소리러아
라듯고부그러급히중의타아리로드러가삼으니가인이필
경보지못하고도라가거늘천중이리드러닐니큰오리너의
침사람이발서갓시니가히나올지라흐되그리즉시요리를
치고나오니그벽아리무어시잇서마치천디모양갓고가죽
손이빈를돌너민듯하어은이성천츠고잇던천디모
양일너라

張益



正統間吳郡吏張益領上官檄至松江道經常熟避雨農家其主延坐意甚慇懃畱宿三日吏初感之比還忽起惡念曰是可以術餌也因教獄盜誣攀之夏使人報召來豫計其人恐來求救吏索百金營脫其人欣然與金乃以計斃盜而解之農甚德吏不知其詭謀也未幾吏死一夕農者夢此吏冠服入門覺語其妻是日牛產一犢吏見夢於其子曰吾向詐取某財冥司降罰為其家牛以償宿耗汝可贖還其子遣僕持價遂得牛歸事之如父數年以死

正統間吳郡吏張益領上官檄至松江道經常熟避雨農家其主延坐意甚慇懃畱宿三日吏初感之比還忽起惡念曰是可以術餌也因教獄盜誣攀之夏使人報召來豫計其人恐來求救吏索百金營脫其人欣然與金乃以計斃盜而解之農甚德吏不知其詭謀也未幾吏死一夕農者夢此吏冠服入門覺語其妻是日牛產一犢吏見夢於其子曰吾向詐取某財冥司降罰為其家牛以償宿耗汝可贖還其子遣僕持價遂得牛歸事之如父數年以死

치미이의도라갈석구부요음을보고을연이불츙후의스
 르나여올오리이가히제교로써지물을취함츙후다후
 고옥의가치인도적기를부츙후여농인을불어동거라후
 게후고몬쳐사름으로후여곰그농인의게이소식을보후고도
 불너니를을의논후식구사름이크게두려구완후기르려후
 뒤장이의르오리빙금을니면힘써무스후기르도모후
 리라후니농인이깃거주시빙금을주거늘이의제교로써도
 적을죽이고그날을헤치니농인은그제후할후제교르모로고
 심히고마와후더러오리지아나후여그아천이죽었는지라일
 일은농인이숨을쉬니그아천이관복을납고문의드러오거
 놀선여그쳐와말후엇더니이날그집농위후샷기르나하
 더라이씨의그아천이제아들의숨의현몽후여와르니
 향주의간스후제교로아도의지물을아섯더니명부의쳐나
 르르별후여그집소를만드러그비스를감제후엇시내별
 니감슬쥬고스오라후디그아들의놀나즉시후을보너여
 빙금을가지고다가아비로참기더니그후슈년만의죽
 으니라

徐階



明徐階號存齋督學浙中時年未三十有一士子文中用
 顏苦孔卓之語徐批云杜撰置四等此生當領朴時執卷
 請曰宗師見教誠當但顏苦孔卓實出楊子法言非生員
 杜撰也徐起而立曰本道僥倖太蚤未嘗學問承教多矣
 改置一等等時傳稱徐官至大學士贈太師諡文貞子孫
 貴顯累世

명나라 석재의 호는 존지니 일즉 등과 하여니 삼십이 못하
 여 석재는 중후관이 되엇더니 제성의 글을 시취할 시 현비
 잇석재가 온다 안고 공다 이란 문장을 썼거늘 후관이 이를
 죄르니 아지 못하 고 평하여 왈 두찬이라 하여 제스 등의 리
 치니 두찬이란 말은 출취어비석재의 소로하 단 말이라고
 선비 글장을 가지고 하 소어 하여 왈 어문조는 양주 법어

의이든문조요성의두찬흔비아니라하니석계너러나샤레
 흥여왕디요형으로일즉이라거하야진실노흥문이부조가
 흥여문조의출처를아지못중고그르노미이석더나이제큰
 이치물만히보과래라하고곳척일등의배히나일시의고도
 람을칭부하더라그후벼슬이리후스의나르고리수를주
 증하며시호를문칭이라하고즈손이여러적귀히되여현달
 하니라

薛玠



薛玠字藩卿弘治壬戌舉進士先一月時夢其父同二老
一身半小一身絕小同聲謂藩卿曰你只說中舉中進士
容易先要考我們陰騭途間受了多少辛苦方得汝榮顯
吾兒當積德以遺子孫玠問二老爲誰父指曰半小者汝
祖父也絕小者汝曾祖也玠醒爲人道其語如此

설근기의즈는반경이니홍치임술년의진스항옛는자라진스
항기적의월여의그아비두늘으니로더부러항가지로현몽항
니항노인은몸이예스로이제그마항고항노인은몸이지극히
적은지라소리르르스치항여닐너월내진스항기용이항다말항
러니와우리드리의음더우를상고항진리그스이하다신고항
으로네비야흐로여귀항며현달항기르어덧는나우리아희
는맛당이만히적덕항여즈손의이치라항거늘기무르되
적두노인이커니잇고기벽골오취왈적적이적이니는너의조
부요적극히적이니는너의증조부라항나키여여사름으로
항항여슈말을니르고이상아너기더니그항과여진스항고
누해현달항나라

董朴



董大參朴家居適直指爲公門生監試秋闈先時密封經
 旨授公公發書亟焚之曰上欺君下妨人才吾不爲也是
 年子竟中式

동참정공의 명은 박이니 그 아들이 잇셔 가을과 겨울은 시
 흥시이셔 시관이 마춤공의 문성이라 미리 글체를 너여
 공의게 드려 그 아들을 주게 하니 공이 글을 펴보고 즉시
 불의살나 큰오리우호로 님군을 속이고 아리로 사르니
 의저조를 허롭게 함이니 너엇지 이를 허응리오응더니
 이허의그아들이 필경 등화하니라

俞良臣



嘉靖中江西俞公名都字良臣弱冠遊庠與同學結文昌社惜字放生戒淫殺口過行之有年七戰棘闈不售生五子四夫一失去妻以多哭兒女兩目皆盲公貧窘不堪每年臘盡自寫文疏禱於竈神求上達天曹至四十七歲除夜與瞽妻共坐忽有一角巾阜服者相訪曰余知君家事久矣君意惡太重尚務虛名滿紙怨尤瀆陳上帝恐受罰不止此也蓋察君私居獨處時貪念淫念妬嫉念褊急念高已卑人念恩讎報復念種種意惡固結於中神註已多天罰已甚方逃禍之不暇何由祈福哉公驚愕請教角巾阜服者曰君從今後行善須要著實凡有妄想惡念先具猛力一切屏除只理會行善一邊去若力量能行的不圖報不矜名不論大小難易耐心去行若力不能行的亦要

懇懇勤勤使善意圓滿第一要忍耐二要求遠心真不可
 自情自欺久久行之自有叵測效驗言畢遂進竈室不見
 其人方悟為司命之神公即於元旦拜禱天地誓改前非
 實行善事自利利人無所不勉如是三年年五十歲甲戌
 首輔張江陵為子擇師同鄉紳廉交口薦公遂聘至京師
 公挈眷以行克盡館職張為公援例入國學中丙子科北
 榜舉人丁丑進士一日偶謁內官楊公楊令五子出拜皆
 覓諸四方為已嗣者內有一子年十六者即公失去之子
 也楊即送其子隨公還寓夫人撫子大慟雙目復明公悲
 喜交集不願為仕辭江陵回籍為善益力其子娶婦連生
 七子悉嗣書香公手書遇竈神一事垂戎子孫壽至八十
 有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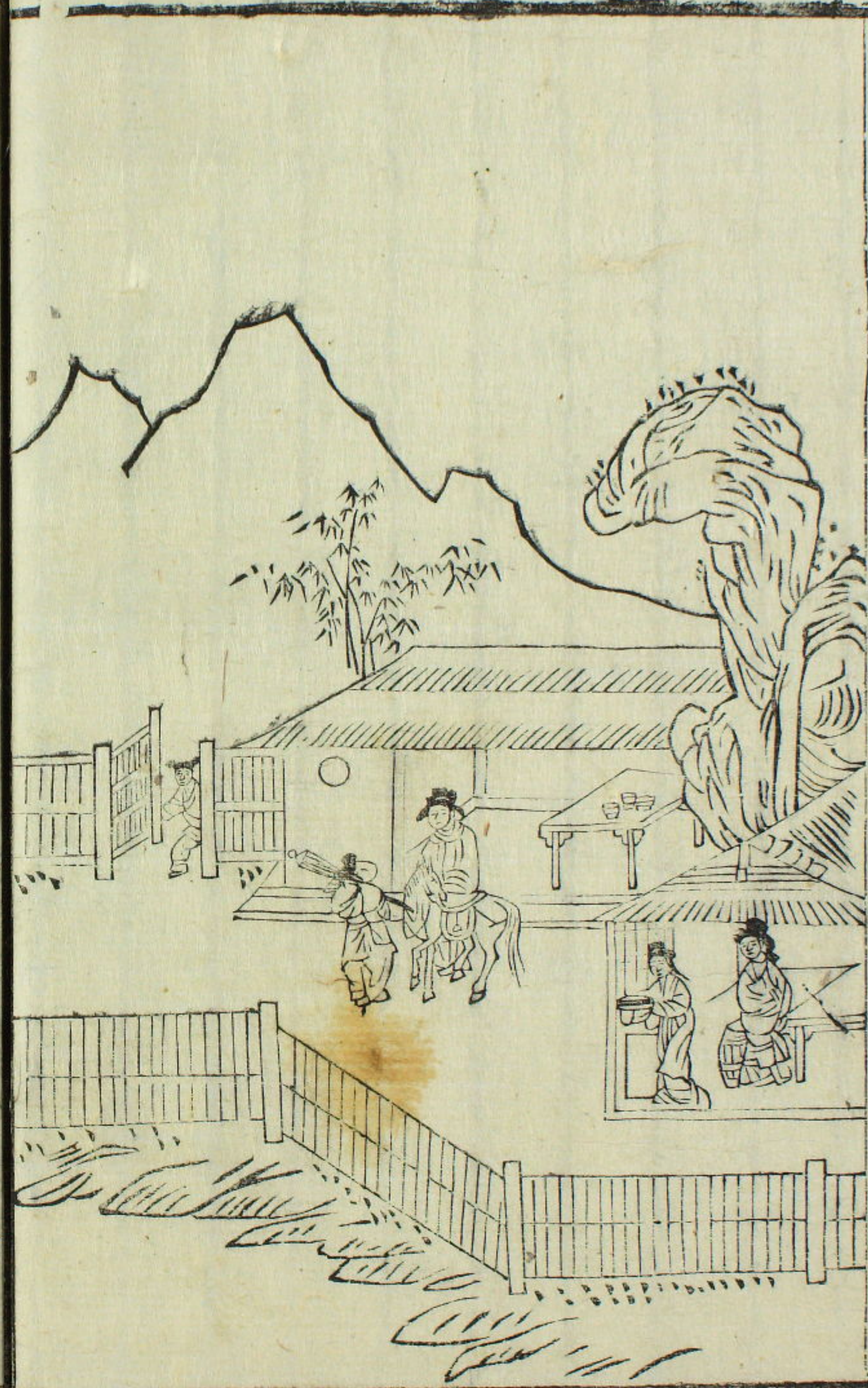
가령의 강쇠는 허이는 공의 머은 도요는 남신이니 나히약
 관의 향교의 쇠돌시 동향심으로도 더부러 문창스라 향은 계
 르고 모흐며 글 쓴 조희를 공경하고 산 짐승을 노하며 음난
 향의 남과 남의 허물은 정제하여 허향기를 허무하여 더
 니 일곱 번 회회 시보아 춤방치 못하고 또 드섯아 들은 두어
 더니 네아 들은 요스 향고 향아 들은 어려서 일흔 지라 그 안
 히스 더로 향여을 기를 만히 향미 두는 이 폐명향여 더라
 공이 빈 구음은 전지 못향여 미년 나 남월 회일의 원어
 향글을 지어 부어 신령의 게 비러 상현의 주달 향기를 출
 워는 더니 나히스 십칠 세 되던 회회 석을 당향여 늘 먼
 취로 더부러 향가지로 안 짐스 더니 향글 연이 향각 전 쓰고
 거모은 옷 너님은 사름이 츠즈와 글 오디니 그리이 지비닐을

알안지오린지라그릭의뜻이모질기척과중여스듯했
 니르흙을힘쓰고조희의가득히원망흥글노상제의
 드르시물너러이니벌은바스를비이만흥지아닐지라
 리척그릭의호른노잇쉬한가흥덕의잇는묘음을슬퍼
 보건디람흥싱각과음난흥싱각과투괴흥는싱각과
 편급흥싱각과몸을놓하로라흥며사름을느즈리흥
 는싱각과은원의보복흥를싱각이음츠이러나니여
 러가지몹슬싱각이중심의얼젓시므로신명이미리
 부흥여장츄년벌이갑흐리니이제화르도망흥고회
 흥려흥여도엇지못흥려든무슨복을빌어엇으리요흥
 거닐공이뜻기르다흥고크게경악흥여선도의나아가물
 처흥은덕그사름이르오디그릭이제로부러어진닐을흥

흥.미모로미진실흥.제흥호후망녕되묘음과모진묘
 음이나저든큰힘을니여명년이물니척어비시흥고다
 만어진닐흥흥기만싱각흥여그편으로가기만힘쓰고
 만일제힘의흥흥염증흥저든갑기도비라지말고일
 흥너기도구치말고크며저으며어려우며쉬우물의논치
 말고묘음을전적여흥흥고만일힘의능히흥흥를쉬
 업더라흥여도또흥간근흥흥다흥여어진묘음
 이이전만제흥리니제일은춤고전디미오제이길이흥
 흥묘음이긴절흥거시나가히스스로게어르며스스로
 소기르나나흥지나오리도록흥흥면모로흥이불
 츄흥은효험이시리라흥고말을맛츠며부억이로드러
 가고드시보지못흥다비야호로저드라와명흥가음

아는 신령이라 하고 공이 드드 여원조의런 지회절능 여
빌고 천허물을 버리고 신노착을 버리고 허물을 버리고 밍세
능 여 스스로 나쁜 날과 사름의 게 나쁜 날을 아나 함은
비업시 능 여 이러 트는 지삼년의 밍츠나 나히오십세 되
던 갑술년이라 석의 디승상장 능 여 아 들을 의능 여
어진 스승을 구할 시 동향의 잇는 스디빅 공의 덕형을 천
거 능 여 승상이 천능 여 정수의 나를 석공이 가 권을 드리
고 능 여 니르러 아히 마르 치기 르구 진이 능 여 고 승상이 공을
의능 여 구능 여 의 드리니 병은 년과 거의 거인 으로 생히 고 절
축년의 진스 급제 능 여 사타 일 은 우연이 니 관야
공을 만나 말 능 여 사 양공이 아 들 드 석승을 니 여 보니 이
는 다 스방의 여 어와 아 들 되 바라 그 가 은 디 능 여 아 히 잇서
나히 심복 체 니 곳공의 일 히스던 아 들 아라크 제 반 저 드 리고
집의 도라 오니 부인이 그 아 들을 어루만 쳐 크게 슬허 능 여 가
문득 두 눈 이 드 시 여 년 는 지라 공이 비히 고 집 능 여 벼슬
을 원치 아니 능 여 장승상을 하 직 능 여 고 가 권을 이 스르 고
향으로 도라 가 착 능 여 나 들 더욱 힘쓰니 그 아 들 이 장가 들
미년 능 여 천 스르 나 하니 다 총명 능 여 공의 스 업을 나
어 리 현 달 은 지라 공이 천 허 부 어 신령 만나 던 날 은
기록 능 여 스 손 을 정제 능 여 고 나히 팔 십 팔 세 르 사 라 스 더
라

羅倫



明羅倫少礪志聖賢郡守張瑄惜其貧命有司周之謝勿受三十舉於鄉赴禮闈宿山東旅舍僕於院拾一金釧匿不以聞行兩日倫嘆曰去京尚遙費盡可奈何僕曰無慮出金釧告以故倫大怒欲親賫還僕叩頭曰如此恐誤過會試倫曰此物必婢僕遺失萬一主人拷訊因而致死是職誰咎寧不及試無令人死於非命也竟還轅復至其家果緣婢潑盆水釧在水中并棄於地主母答婢流血數尋死夫又詬妻辱詈不休妻亦憤欲投繯一門如沸羹公至出釧與之全活兩命舉家感激街鄰觀者如堵無不稱嘆即以鼎元期之至京已二月初四矣倉皇投卷是年果狀元及第

感應篇 士人善報 十九

부러니 근슈장현이그가난함을불상이덕여스로주
급호외곳이소양하고바지아니하더라나히삼십의
향시의생혀저소회시의나아갈시산동저희도라
점삼의처자더니그중이흔나스근금번혀를어어감초
고히호지슈일의맛춤노비친흔자라근이란식와리이
제정소로갈길은오히러말고노비는이되라하여스시나장
호엇지하리요그중이큰오적소복이히호저른어더스오
니너모너리마르소서하고금번혀를니여어고르니하
니근이되로하여장호친히가지고도라가니모저르니차
즈주려하거늘그중이머리근조아큰오적이러드하호
면회시일적지늘거스니두리전되스기르스된가하호이다
근이근오적이물근이반드시비복베의근드하여일흔
비니만일근주인이비복을힘벌하어무드가죽기의니
르면이곳우리허물이니차라리과거의밋지못할지연경
사람으로하의음비명의죽기르어지하리오호고맛춤니
슈리근두루허그집의니르니과연계집중이물을브리드가
물과함의보러서니주되그중을달초하여거현이낭자하
니근로죽으려고쳐돌며그주모의지아비또하그취르후짓고
나므라니그취또하분하여저전코쳐하미일문이얼느드하
지라공이반혀를니여주니두명을온천이살온지라일근
감적하고이소과거리의조보느사람이저마다칭찬하고
라부하여공정되신이되리라하더니경호의니르니반쳐이
일근초스일이라저우회시의미스첫느지라창회이근을지
어남권하엿더니이회의과연장원급제하니라

劉理順



河南劉理順鄉薦久不第讀書二郎廟中聞哭聲甚哀問之乃一人出外七年不歸其母年老貧甚欲嫁媳以圖兩活得遠商十二金晚即歸商南去姑媳不忍相別可劉聞之急呼其僕曰取家中銀十二兩來僕曰家中乏用已極止有納糧銀十餘兩明早即送至縣矣劉曰汝取與我官糧再候借當可也因作一書內稱其子之語言離家七年已獲利五百餘金十日後僕歸先寄銀十二兩等語覓人送至其家姑媳得銀及書以告遠商商知其子在遂取銀送婦而去越十日其子果歸所得之銀及所行之事與書中一字不差母以問子子駭甚但曰此神人憐我也每日合家拜謝天地而已劉公是年會試廟祝見二郎親送焉果中崇禎甲戌狀元其子後於廟中見公題詠乃知書銀

出自公手舉家往謝公竟不認

하람쓰히유리순이라호는사름이향천으로오리등과
치못하고이랑묘의이씨글너더너흔연이슬픈우름
슬리들너거른구연고를아라보니이느그니웃집사름이장
스호라나간지칠년이라지금도라오지아니호고그어미와
안히이스니아미미나히하고또흔집이가난호지라드무
숨이슬기름도모호여원방상고의게십이금을받고며
느리르과라시니날이느즈면맛당이그상고르느라남으
로갈지라고식이차마쳐로쳐나지못호여울미러라누공
아듯고급히그중을불너너로되네집의가는스십이냥
을가적오라호는더그중이더호여왕가중의쁘던거시이미
괴리절호고다만과가의구실호른은스십이냥이이스오
니이일은가척고을의보탈지니가척오라지못호을소
이다누공왕아모려나가척오라과천은조초번동호여
호른거시라호고의호여늘월을쁘되고아들의말너호여왕
집을떠는지일고다히의이미몸이무양호고장스의오빈여
금니르어은지라십일후면맛당이집으로도라갈거시
오죽금인편이이기로은스십이냥을문쳐부치노라호
여사름으로호여곰그집의천호니그어미은과글을보고
그상고의게이섯을느리고은스름도로쥬니상고과아들
이이스름을알고드여고며리르느치치아니호니라고
호스십일이되미과연그아들이도라온지라이의그글을
보고크게놀나다만너로되이느신인이우리르불상이
너이미라호여미일의호년지희비사호더라누공아

이희의과거의갈석이랑묘직이보미이랑군이친히
 누공을보니더니과연승정갑술의장원급제하였
 더라고후장수하던아들이그묘의갓각가누공의글이변
 의이름을보니그년은음영은저시라비로소누공의호
 날인줄알고흔개다나가스레흔디공이맛춤너그런
 체아니하더라

李泌



居原卷

三

士人善報

三十三

昔李泌七歲能文常賦一長歌見志聞者莫不嘆賞張九齡
 戒之曰藏器於身古人所重今君早得美名必有所折
 宐自韜晦泌感悟泣謝從此不復自衒遂爲一代名相
 當나라니 필이 칠배의 능히글을 흥고 일즈장가 일편을
 지으니 뜻는 저 탄상치 아니 리 업더라 장구령이 경계
 여르오디 궤 큰그르손 몸의 감초미 냇사름의 쯤그히디
 기는 비어늘이 케그디는 아 글모든 온 날 흥음은 일즈기
 어더시니 반드시히로 오미이 잇슬지라 맛당이 김히 감
 초아 스스로 브리히지 말나 흥디 필이 그말은 감적흥여
 올며 샤레 흥니 이후로 부커드시즈 흥치 아니 흥여드
 여일디 명저상이 되니라

張畏巖



武進書

三

士人善報

二十四

江陰張畏巖甲午鄉試不中大罵試官有人笑曰還是
 相公文不佳張叱曰野道烏知之從旁者曰文貴心和氣
 平相公心氣如此文安得佳張不覺屈服自此折節自持
 丁酉夢見一人持試錄一冊對曰汝三年來改過自修當
 入此冊是科果中一百五名

강음은 허장외암이라 하는 원비이석향시 초시의 음방
 치 못하고 시관 이그르다 하여 크게 욕하며 꾸짖기를 마지
 아니 하거든 벗히 현사름이 잇셔 우스며 날니 왈 이는 시
 관의 그르미아니라 필경 상공의 글이 또 치 못함 이로
 다 하니 외암이 더욱 분하여 꾸짖왈 너의 무리 무어
 슬아 노라 하는 다 그사름 왈 리 췌 글이라 하는 거슨 무음
 이 화하고 괴운이 평항하여 잘 하니 거시 어늘 상공의
 시과 이러스조 하니 엇지 글지음이 아리도 오리요
 리외암이 크게 부스그리고 항복하며 이후로는 절로 이
 음으로 못쳐 공부 하니 그후 삼년의 한사름이 과거 방
 쏜척을 가쳐 보며 왈 네 삼년을 공부하여 허물을
 고쳤으니 일흠이 마땅이 척의 음이라 하더니
 과연 그히 과거의 급제 하니라

劉徹



南豐劉徹屢舉不第祈夢於神夢神告曰汝生平見善不爲且有虧德何望登第徹訴平生並無虧德神曰汝弟負官錢不能助令死杖下非虧德乎徹又以弟不肖爲解神曰行道之人見且不忍何況兄弟汝不知朱軾代納青苗事耶行獲爲善之報矣徹覺訪於軾軾曰今年某遠館歸見途中械繫者云欠青苗錢二千五百限滿無償某因以束修與之不意面蒙神契後軾三子皆顯官

남풍 오희규철이라 하느선비잇스니 여러 번 응시 하여 등과치 못 하고 신령의 계비러 꿈의 나르시물 청하더니 일일은 꿈의 과연 신령이 보여 날 너와 함께 평성의 착하느니 을 보아도 힘치 아니 하고 또 덕아닌 날이 잇스니 어지든 과하기를 바라 리요 하거느 철이 발 명하 여와 너 평성

이고 그대님을 원하옵는 비어 버려지던 아난님 이 있다
 하시니 요신령왕과 네 아우 잇셔 관천을 지고 능히 감지 못
 하였거늘 네 일즉 돕지 아니 하며 장하의 죽게 하니 엇지던
 의 이르러 지미 아니 리요 철왕 이는 가계의 불초 하며 그리 되
 미라 엇지니 타사 라 하며 리요 산령왕 이러 듯 불상 하며 너는
 길의 지나는 지보 아도 오히러 불인 지심 이 잇스려 든 하며
 형제야 날 너 무엇 하며 리요 네 엇지 주식의 사름을 더 신하
 여 관천 감하 주던 날을 아지 못 하며 엇는 나그 사름은 이런
 착한 님을 원하옵는 여 시비 장차 가흐를 엇으리라 하며 너는
 천 리 이 무덤을 여 주식을 츠즈그 님을 무르니 식왕의 일
 즉 원방의 가 후 장하고 도라 올라 의 길의 후 사름이
 칼 쓰고 가며 말하며 되 관천 니 천 오 백을 지고 한 이 지나
 도록 감지 못 하며 이 리 괴로 으믄 밧노라 하며 너는 듣고
 불상이 너 거인 하며 강미 모흔 거슬 기우려 주었더니
 생각 밧과 신령의 알음을 님 엇도 다 하며 너라 그 후 식
 의 새 아 들은 모 다 돕흔 벼슬을 하니 라

李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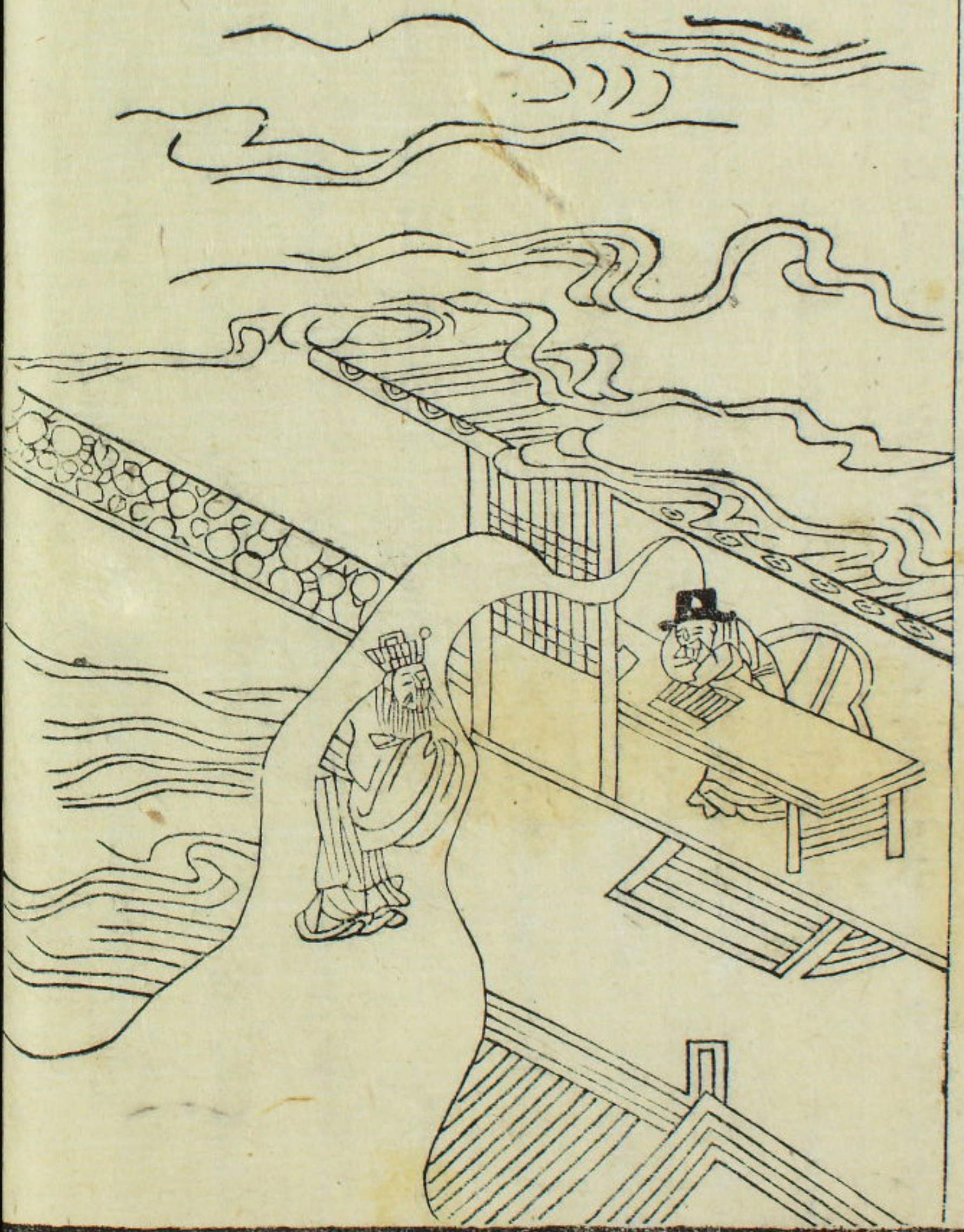


李登年十八魁鄉薦自謂狀元不難後竟沮滯十餘年因
 詣葉靜法師問終身事師為登上章適天門未開見諸判
 官皆森列門外師以登事叩之一曰李登初生上帝賜以
 玉印年十八魁鄉薦十九作狀元五十三作右相緣魁薦
 時窺一鄰女事雖未諧而繫其父於獄坐此降為第二甲
 第二十九人繼又橫侵其兄屋基坐此降為第二甲第三
 十八人後又長安邸中淫一美婦懼其夫知先陷以罪坐
 此削其祿籍今又挑一室女為惡不悛已除壽算何望登
 第師還悉以告之登大慚沮愧恨而死

나등이라 하는 사람은 나히십팔의 향시 초시의 장원 한
 나 소년 지화로 성명이자 후지라 스스로 되회시 장
 원 이어럽지 아니라 후의 필경 침체하여 사십여 년을

지니되 등과 치못흔 지라 인흥 여 섭정 법스라 흥는 도스르르
 즈공신 슈를 무르시 법식 등으의 흥 여 하날의 올나 가니 현문
 이 열나지 아니 흥고 모든 선관 이문의 삼년 흥 여 거늘 도서
 리 조이며 니 등의 날을 무르니 그 중 흥 선관 이 날 나 와 니 등 이
 첫음으로 날 혁의 상제 우니 을 주샤 나히 심판의 향시과
 슈되고 십구세의 장원 급제 흥고 오십삼세의 나르러 정승 흥
 게 흥 여 세시더니 첫음 향시의 리 슈로 뽑힌 후의 니 흥지 비녀
 즈르 귀시 흥고 취고 처 흥 여 그 아 비 르르 옥의 가 두 앓시 니 그 날
 이 비록 니 흥고 든 못 흥 여 시나 일 느 인 흥 여 장원 을 앓고 제
 스물 아 흥지 흥게 흥 여 시더니 쏘제 형의 집터 르르 회 흥침 흥
 년 좌로 강 흥 흥 여 제 설 흥 흥 여 래 지 되 게 흥 흥고 또 장 안 흥
 중의 흥 미 이 흥 음 나 흥고 그 지 아 비 알 가 두 러 문 적 죄 의
 색 지 게 흥 나 일 노 연 좌 흥 여 그 노 적 을 학 가 흥 여 어 비 게 흥
 여 거 늘 쏘 니 흥지 비 의 이 흥 흥 흥 처 녀 를 쏘 흥 여 시 니 침 흥 악
 을 흥 흥 고 치 자 아 니 흥 미 이 슈 한 흥지 덜 게 흥 흥 여 거 든 흥
 지 등 파 흥 기 를 빌 라 리 요 흥 거 늘 도 시 로 라 와 귀 로 흥 흥 나
 흥 흥 이 크게 부스 그리고 과 식 흥 흥 여 죽 으 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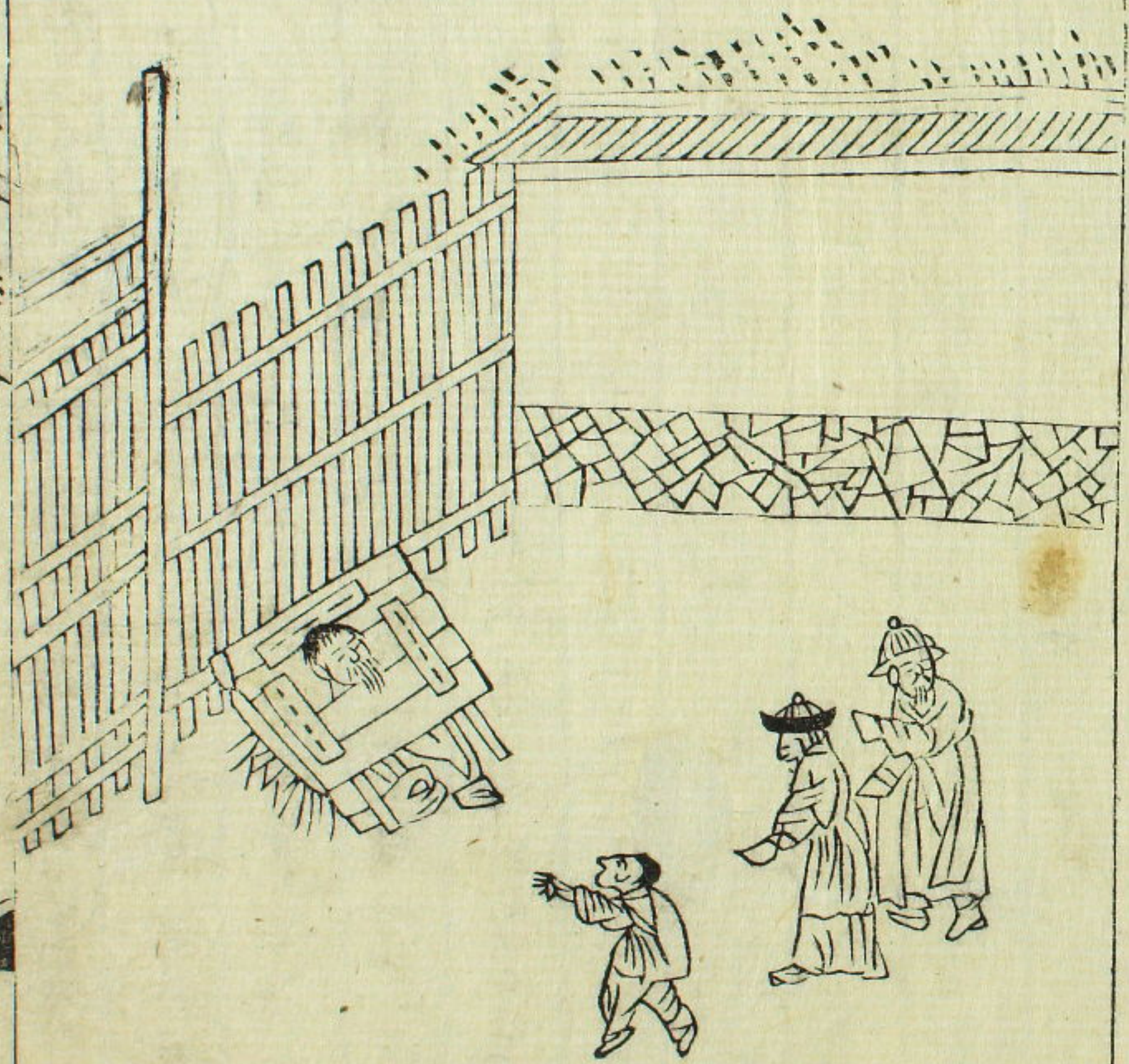
左蹕



台州舉人左蹕赴禮部試卷甚佳房考擬爲第一忽夢神告曰此台州左蹕文也頃居鄉受賂若干爲請托致有枉法而死者陰譴減折祿算幸無取也遂黜之及榜發對原卷果左蹕也未幾蹕遂客死燕山此鄉士受賂之報也夫孝廉衿貢當修身如玉稍入勢利門中便於功名有碍乃知今人文高不遇率此故也怨天尤人曷若返而修己
티쥬헉히헉거지잇스니쥬머은죄필이라회시르보려
네부의나아가응시헉르쥬그클이심히아름라운지라시관이
크게괴특이더겨생혀죄일을숨으려헉더니홀연시관의
꿈의신인이닐너와장원으로생히늘은티쥬죄필의
글이라죄필이천의식골잇스르쥬의사람의약간회로
르반고그른닐을청초헉여의미헉사람을르그른반으로

죽엇는지라 가만흐벌이 석관과 슈한을 업시흐였
 시니 종신과 거치 못하리라 원컨디 글을 취치 말나흐거
 늘숨을 쉰여 글을 너치고 출방호 글을 쉰여 보니 과
 연 좌필의 글 일너라 오리지 아니흐여 필이 연산 석히 석
 립스흐니 이는 석골 선비의 뇌물 밧고 큰닐흐보응일너
 라 뒤쳐호렴과 공성이 맛당히 슈신호기를 우국치하를
 거시어늘 만일 천체길의 조곰이나 간석보흐면 문득공
 명외히로 오미될거시니 금세 사람의 글이 좁흐되 석
 른만나지 못하느거시 뒤쳐이러흐연과 하늘을 원망
 하며 사람을 트스흐지 말고 도로혀 몸을 닦는거시엇지
 올치아나리오

浙中舉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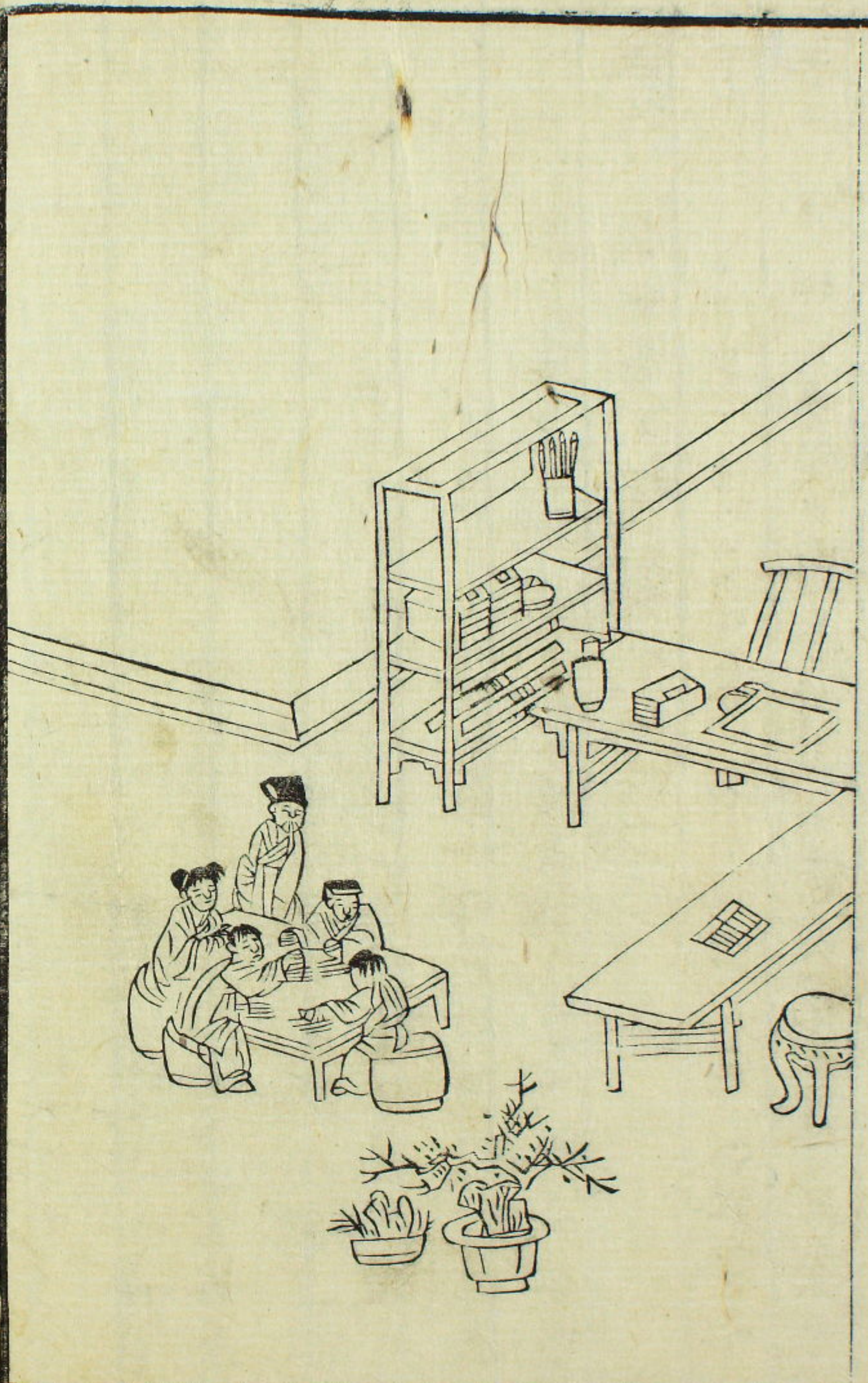


士人惡報

浙中二孝廉有友窺某妻色殊絕欲計得之孝廉為畫策
 飛語入某之耳謂妻有所私也某欲出妻商於孝廉復力
 主之為作雜書既脫稿某手錄去適賣筆者至購選毫以
 脫稿塞管中越三年為順治戊戌會試攜筆入闈忘其脫
 稿之在內也搜者得紙以功令故荷枷責杖革去舉人

절중의 갑은 두 효렴이 잇더니 갑의 게흔 벗이 잇셔은의
 최아름다옴을 보고 게고로 취고져 하 여 갑으로 더 부러
 쇠하니 갑이 그 벗을 위하 여 회친 하니 말을 지어은의
 귀의 들여보니 여니로 디고 쳐 누구로 더 부러 도간 하미 이
 이라 하니 은이 그 말을 듣고 갑으로 더 부러 의 논하 디 갑
 이 힘겨 권하 여 출 최하 라 하 고 인하 여니 혼쳐 르 디 신
 지어 주니 은이 나 혼쳐 르 벗겨 가 지고 가 나라이 셔의
 갑이 마춤부 슬스 가질 식고니 혼쳐 초잡은 조희 르은 우
 연이 붓되 속의 니 혓더니 그 후 삼년의 순치무술년 회
 시의 응시 하느 식 그부 슬스 가 지고 장중의 드러 가니 그 글 최
 붓되 속의 잇는 줄은 전혀 나 췌더라 이의 슈하 무하 여
 적간의 잡힌 비되니 이 셔시 소법이 장중의 드는 선
 비 글 쓴 조희를 가지 못하느 법이라 이의 법은 법은
 엇시므로 칼뱀 위장 칩을 무슈히 하 고 선 비 이 은은
 사적 하 나 라

京口張姓



萬曆間京口張姓者有文名試七次不得采芹求夢文昌
夢帝君怒視曰天罰至矣尚望泮乎爾憶十五年中豪富
相延束脩殊厚汝所授不能償十之一凡歷五家皆為改
作文字欺誑父兄遂誤其子終身今爾資用頗裕猶不思
服所從來聚徒館舍羣習樗蒲為師者當如是乎張不
敢答遂覺因禁不出戶方圖自改一日杜友過訪送不數
武見其徒洵洵至報曰某生因賭而鬪為某生擊死矣張
株連訟庭刑辱不堪財盡悒悒而死

만덕년간의경구하히한선비이시니성은장이라일즉
문명이시나일급변응시하여한번도참방치못하
였는지라문창제군이비러삼의마르치시믈청하니일
일은삼의제군이노괴른척여닐너와르네이죄를어드

미김허시미장초천벌이잇스려든오히려참방은
 빌라노라네엇지네닐은싱각지못흐는노네이제열드섯
 히를후장후미호화로는사름과부요흔사름의집
 이셔로칭후여아히르칠시네네단을만히밧고그공
 을갑흐미열희후는히되지못흐는지라무르드섯집
 을적거올마드니며간곳마다아동의지은글즈를못
 처문시아름라갑게후고아희글인체후여남의부형을
 속이니일노인후여남의아들을글르더린지무슈후지
 라네이제가산이즈못너후거를오히려그치지아니후고
 후동은모하르치노라후나글너키기는아니후고날
 마다노름은공부후니스승의도리어지이러후리요후
 거를장성이능히라갑지못후고꿈을현후스스로경
 계후여문을나지아니 후더니일은은벋을보되노라두
 어저름나갓더니후동이급하보후되아모후동이아
 모후동으로더부러노름후다가드도아취죽엇라후더니
 그송스로인후여장성이연재된지라송정의잡혀드러
 가니형벌과욕되물견되지못후고저물을견련후
 여한을뜻하죽으니라

蘇大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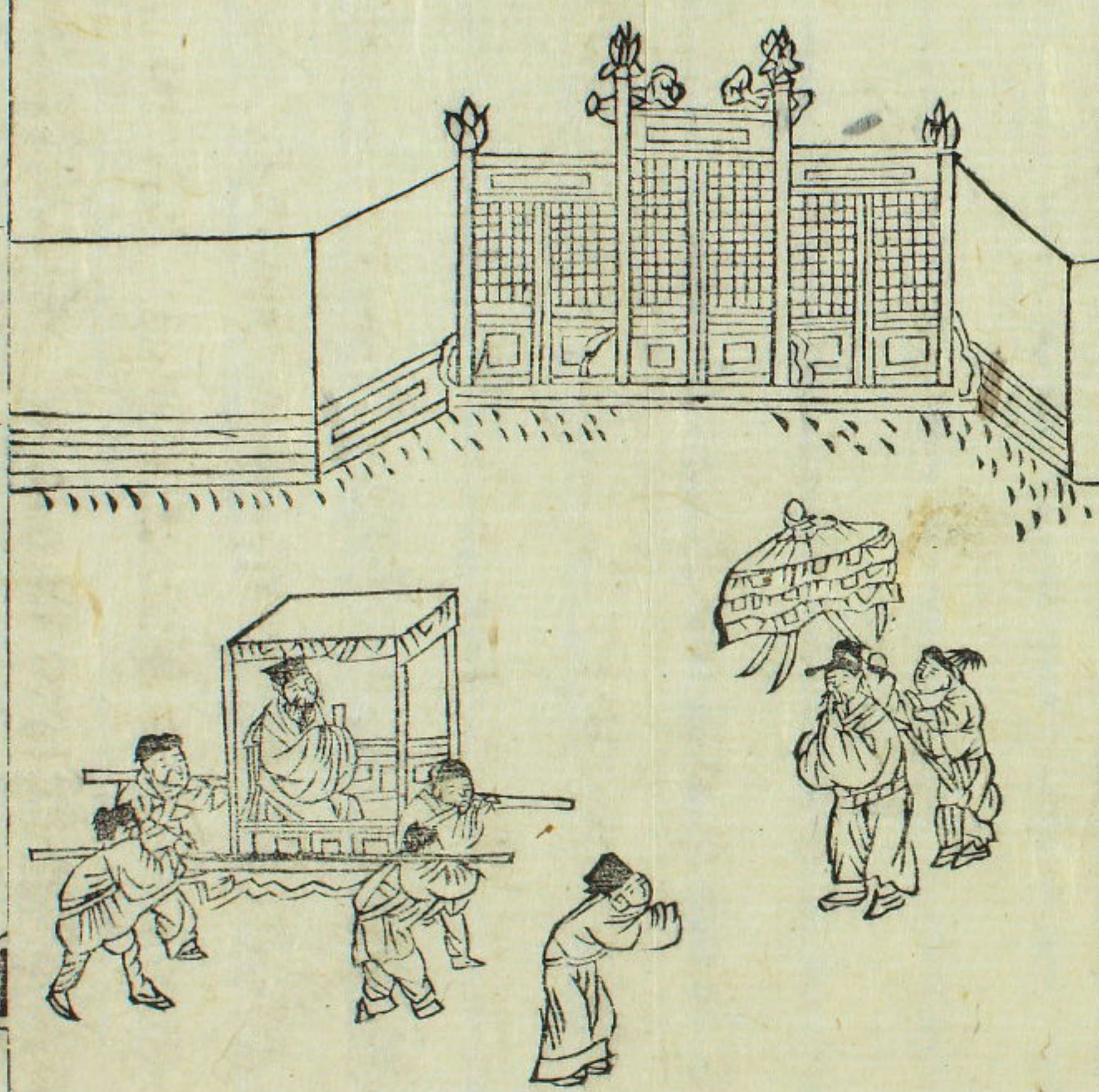


三山蘇大璋治易有名戊午鄉試夢中第十一名偶與同
經友言之訴於監臨處謂其與考官有約及填榜而十一
名果習易者監臨攜狀遍示考官同抽一備卷夏之既折
號則自備卷而中式者大璋也由中式而擧去者訴狀之
人也

삼산속히소디장이라흔는선비이시니이른즉주역경의르르
공부흔여저못유명흔엇더라무오년향시의응시흔르시
꿈의레십일저로흔엇거늘우연이갓치주역경의공
부흔는동점드려그꿈말을일으니그동점이말을
듯고문음의식과흔여감시관의게고흔여와라주역경의
흔는소디장이시관으로더부러언약이쳐연흔르
를시기려한다흔여알소흔엇더니밋방을느려흔르

서시비일진글이라연주역경의글이라감시관이
 글장을가지고모든시관을뵈며스령이잇다흐나인글
 여글을니치고드른글은장으로백혀쳐와서너이
 의비봉을써히니시로치인글장은이의소위장의글
 이오척음의십일제로써법헛다가니척브리글은곳
 알소음덜그동침의글이라이느못쓰름음으로사
 름을히으려하라가도로혀제글을써러치밀너라

南昌士子



咸雅齋

三

士人惡報

三十五

宋南昌李知縣到任謁先聖廟見殿宇頽損基址湫隘遂
作新廟於縣南往移夫子聖像十餘人舉之不動一士子
在旁戲曰是謂之重泥知縣怒正色責之曰汝爲士子敢
侮先聖如此其人惶恐而退夜夢朱衣人追至廡下渡杖
二十及覺如癡人自是更不識一字

송나라 남창공은의니지현이시로도임하고되성묘의
현알을서전각이아되락하여귀지좁고누스비고
을보고서귀지를점복하여고을남편의시로이형묘
를제우고공부스의도상은외쳐음길시십여인이들
나하여도능히움스이지못하니라현비희롱하
여왈이니른중나라 중나라는몽주의지니중나라희
롱한말은무거운흙이란말이니
공자와 공자와와
곳흐미라하니지현이그말으르듯고노하여왈에현비
되여어지이러트형현은어바슈이니이노흔디그현
비화공하야물너나더니그날밤꿈의부리는옷남은
사람이형낭아리로잡아드려결장이십은은는지
라늘나쳐어린사람곳흐니일노부러흔그르도모
로더라

王武



晉江王武以文名諸生間攜酒飲承天寺入藏經堂見少
年沙彌某端坐閱經強令飲酒沙彌不從復樓抱調弄之
歸家三日忽掌口自罵家人不知所謂嚙舌半日而死
단강석희왕 무라 흥는 사름이 즈 못문명이 이더니 일일은
흥을 의여 주효를 이 쓸고 승려사라 흥는 절의 니르러
술먹드 가장경당의 드러가니 흥는 어린 아희 회상이 단
경이 안켜 경을 녀름 흥는 거늘 어지로 술을 먹이 되 풍시 먹
지아니 흥는 지라 드시그 중을 이 쓸어 안고 희학 흥은 마
로 제남을 치고 스스로 억지즈며 혀를 씹물고 반일이
못 흥여 죽으니라

祝期生



祝期生爲人輕薄見智愚貪富皆毀侮評品之卽無可擬
 議者亦巧求其短以毀之晚年病舌黃每發必刺出血數
 升而已旣而復作又刺一歲五六次痛不可言竟至血枯
 而死

축괴성이라 함은 사람의 위인이 경박하여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과 가음연 사람은 도모지 회방
 하며 업슈이 너여인 품을 놀난 함을 시가 하나 무랄 디어는
 사름이라도 공교로 이그 단 쳐를 구하여 회방하기를 표하
 더니 만년의 허약히 병이 들어 누르고 앓과 견디지 못함은
 지라 미양병이 발함면 침으로 지니 두어 되르니 함은
 낮은 지라 미양이 러스듯 일년년의 오곡 초식 알함나 아랫함은
 견디지 못함고 필경의 말나 죽으니라

陳孟玉



陳僖敏公鑑父孟玉本農人也為人善良常出行登廁見
鍋底飯一塊在廁旁拾於水中滌而食之是夜夢神告曰
翁好善如此當獲福報吾梓潼神也今將降生以大爾門
未幾生公仕至太子太保尚書累贈翁如其官母封一品
夫人

희민공진일의부망옥은본디농수향은사름이니익인이
착하고어질며부즈런하고검박은지라일즉뒤한의가
다가보나누른밤은등이뜨히잇거늘묘음의앗가이벽
여집어가지고도라와물의베셔스스로먹엇더니이날밤
꿈의향신령이와닐너르오디어진닐은이러듯도하
하니맛당히복을은받으리라나는적동신령이려니
이케그리지묘의려여나문호를창성하리라하더니그후

오리지아니 흥여 공은 노 흥니 문장과 덕행이 일체의
 유명 흥고 벼슬이 취스리 보와 상셔의 나라니 그부친은
 봉작 흥여 그 벼슬과 맞치 흥고 그 모친은 일품부인을
 봉 흥니라

張若水



豪民張若水凡遇鄰里苗稼茂時往往縱牲畜踐食一言
相觸卽遭凌窘偶醉歸逢一巨人怒曰我穡神也汝壞我
功多矣若水驚還瘡疾死

장약슈라호는사름은호한호빅성이라미양남의견
답의벼와곡식이무성호곳을만나면우마계견을노
하즈브래으며뜻어먹이기를임의로호고만일호말이나
호는자이시면어반슈이덕여우지고모히호는지라일호
우연이술을취호고도라갈시호큰사름을만나니그
사름이성되여우지죄알나는곡식맛호신경이라네
엇지나의공을문호지르미이곳치만호호호니약
슈크게놀나고인호여학질호엇어죽으니라

安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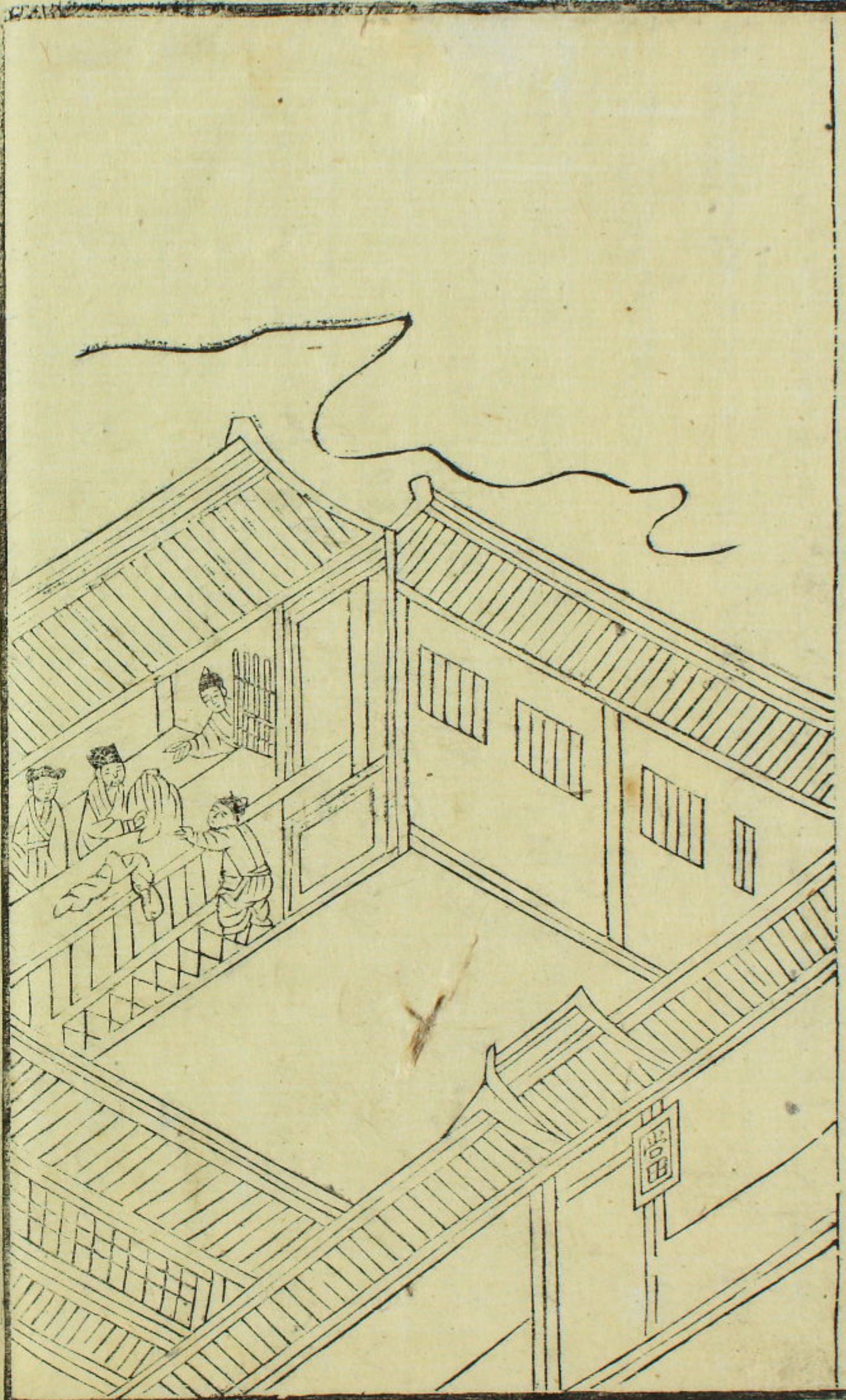


蔡京用事元祐諸臣排陷死徙略盡京猶未慊意命等其
 罪狀首列司馬光目曰奸黨刻石殿門又自書大碑頒佈
 郡國長安中無敢議之者惟石工安民辭曰司馬相公海
 內稱其正直今謂之奸邪我不忍刻也官欲加罪民泣曰
 乞免鵠安民二字於石末恐得罪後世聞者愧之靖康中
 京既正罪安民亦得褒贈

채경이 용권할리시원우현신을죽이며키향보너기르
 일시의다하고오히려다음의치지못하여드시그죄상을
 날것고츠레로등분할리시마광으로괴슈라하고죄목
 하여글오되간상은무리라하여스스로비문을뵈군현
 의반포하고또돌을스여간랑비라하여필문밖외
 우려하니조경신민이하나토감히의논할지업스되

오직비돌속이논장인안민이라하논사람이즐겨속이
 지아나려하여왈스마상공은하니지인이모다그죄직함을
 날것는비라이제간랑이라죄목하니너엇지참아속이리요
 하니관개노하여죄를더고쳐하되안민이을머르오디
 속이기는속이러니와다만돌속희안민이속이다괴록하
 기는말고죄나라니후세의이비석속이죄를엇으르가
 두러하노라하니듯는죄모다부스그려하더라그후경강년
 간의채경이죄하여이의죄를정하민안민을포장하
 여증직하나라

尤翁



長洲尤翁開典舖歲終有人白手來取當舖司典者不允
 遂大聲罵詈翁徐諭之曰我知汝意不過為過新年計耳
 此小事何以爭為命檢原當得衣幃四五事翁指絮衣曰
 此禦寒不可少又指道袍曰與汝為拜年用他物無所急
 自可留也其人嘿然而去是夜竟死於他家涉訟經年蓋
 此人因負債多已服毒知尤翁可詐故來此既不獲則移
 於他家耳翁因語人曰凡非禮相干其中必有所恃小不
 忍則禍立至矣

장주우옹이 권랑 푸리로 성이 흥리 시이척세말이라 흥리 사름
 이 척돈은 아나가 지고 빈손으로와 권의 잡혔던 권당을
 니여 달나 흥리 권랑 맞듯던 사름이 돈어 시움을척 흥고 주
 지아니 흥거늘 그 사름이 노 흥여 크게 꾸짖고 흥여 귀세 심히

의름은지라우옹이찬이달녀와늘니네뜻을아니니분
 과외항기르위함이라이느적은닐이나무스맛틀비이
 시리요항고명항여그사람의전당을상고항니의부스오
 가지라우옹이그전다충의숨드오슬큰으취와늘이거슨
 치의름만으거사나가히엄지못항거시오도포르르
 취와늘이거슨시히의취비항를제키니요항은엄지못항거
 시미너르주어킨용항게항고그남은거슨급항은물건이
 아니아적두미올도다항니그사람이항말엄취무여
 이가더니이밤의마춤드른사람의집의취죽은지라고
 집사람이송스의걸니여히포신고항니이느그사람이남
 의돈을만히지고갑항를길이어버스므로항항항미음은니
 여사람의게지더항라항미이미도우항은먼고우옹의집
 의니르러스더니제교르니루지못항고드른집의화를음기
 미라우옹이사람드려말항여와늘무르비리로사람의게
 구항는거슨반드시가온뒤밋는비이느니조곰참지못항
 항들그해곳니를번항과라항터라

南貨店人



萬曆年間揚州有大南貨店其人臨死囑子曰我平生起家在此一秤其子請問其故父曰此秤乃烏木合成者中空內藏水銀秤出則將水銀倒在秤頭秤入則將水銀倒在秤尾入重出輕所以致富子心怪之而不敢言父死子即將秤燒燬烟中化出一龍升天未幾子之二子皆死因怨曰父在日用心不公反獲平安今出入公平反將二子雙亡嘆畢憑几而寤夢至一衙門一官坐於堂上諭之曰汝父生平以輕秤欺人重秤肥已所得雖奢亦是彼分中所應得者但以欺心造業獲罪於天上故遣破耗二星使為爾子迨其成人將爾父所掙家產盡行花費仍繼以火俾爾產盡嗣絕以示其報今爾能改父秤上帝因將二星取回數年之中即換好子二人光爾之後毋得妄生怨尤

醒時一一記之愈加力行善事三年之內果生二子俱中進士子孫繁盛

만년년간의 양주전히 크게 보화됨은 사람에 있어 너 죽기
를 남고 여가 아드나더 부락하 여왕의 평성의 과가 함이
한 것을 더로 하 여노라 하 거를 그 아드나더 이고 연고 르 무르 니가
비왕이 죄을 더는 오목으로 함 부하 여 만든 거시라 그 소
을 비게 하 고 소의 슈은을 너 허시니 물건을 띠고 향서 남
을 달아 줄 체는 슈은을 물건을 노흔 편으로 기우리 고 니가 달
아 밧을 체는 죄을 추면 으로 기우리 니 이러므로 밧는 거 손
무겁고 슈는 거 손가 바야 온 지라 일 노백치 부하 패라 하 니 그
아 들이 듯고 감히 말하 지 못하 나 그 을 치야 니 케 더 이 더 니
기 비 죽 으 미 죽 시고 죄을 을 가 죄 불의 살을 식 문 등 연의
가 온 죄로 죄 용이 화 하 여 하 는 노을 나 가 더 라 오 리 지 아 니 하
여 그 사 들의 두 죽 식 이 일 시의 다 죽 거 를 인 하 여 원 망 하
여 왕 부 친 이 실 죄의 는 무 음 벗 기 를 고 로 지 아 니 하 게 하 여
도 일 성이 평안 하 더 니 지금 은 니 그 날 을 고 죄 죄 을 출 입
을 공 평 도 이 하 거 를 조 로 하 두 아 들 을 방 으로 죽 이 도 다
하 더 라 식 하 기 를 마 지 아 니 하 고 척 상 의 지 혀 조 을 더 니
문 등 참 의 하 아 문 을 드 러 가 니 한 과 인 이 남 히 상 상
의 안 죄 날 너 왕 네 아 비 평 성 의 죄 을 노 백 가 바 압 게 같
아 사 를 을 주 이 고 무 겁 게 달 아 제 몸 의 손 지 게 하 지 라
엇은 비 루 만 하 나 이 또 한 죄 부 복 의 이 는 거 시 어 니
와 다 만 기 심 하 여 작 업 이 만 하 시 미 하 는 의 죄 를 어
든 지 라 이의 파 성 과 모 성 을 보 지 여 네 아 들 은 숨 아

戒德篇

商人善報

四十一

ㄴ

장성훈후의네아비모흔죄물을허비하여진탕하
 게하고또화직있게하여남은가산을마자진멸중고너
 의후스르른흔허그보음을되려하였더니이제네능히적
 을을고쳐모음은공평이하여시뵈상죄술외샤도로
 두벌을거두시니이른곳네죽은주아를이라맛강이슈
 년지네의네게착흥두아를을밭고아주어네되를빛나
 게하시니망녕된원망을되지말나후거를쳐어귀이히
 알고나술치크로후여모음은물게하고힘은다하여착
 흥이내일히어디나후삼년비의주아를을나하야의
 진스훈고죽손이년하여번성하나라

李珣



唐李珣廣陵江陽人父販糴爲業年十五父以老故使珣
主其事人有糴者卽授之升斗令其自量不計貴賤每斗
惟取息數文以資父母澹泊無求衣食自足父謂之曰質
易規利人之常情吾生平不易升斗自以爲公矣汝今任
之自量誠不可及然而生計不置豈非默助耶珣年至八
十餘不改其業適宰相李珣出制淮南珣以犯諱改名寬
李相下車數月夢入洞府見樓閣連延石壁光瑩金牌首
列李珣字長尺餘視之甚喜有一童出自石壁珣問此何
所曰華陽洞天此姓名非相公乃相公江陽部民也珣追
旦遍訪得遂與致之詢以平日得何道術列名仙府寬辭
不知珣問不已寬具以販糴對珣歎不已寬壽百餘卒三
日棺忽開視之蟬蛻去矣

당나라의 나가는 광양사람이라고 아버지께서
로워업하더니 각각의 나히시부모세 되미그아버지의 느러은지
라 각을 시겨되신 하계하니 각각의 아버지를 되신 하여간
하를 시준을 가지고 별을 밧고러오는 사람이 시면 말과되
를 주어 제 손으로 되게 하며 곡식의 귀천을 헤치아니코미
말의 두문니를 어어 부모를 봉양하고 기외의 티바는 법
이 어는 지라 슈연이나의 식이 스 못근 필미지아니 하거늘 기
비닐너와르되쳐상고의 법이 후하니를 취하미사람의 스
정이라니 상히 되를 수이지아니 하여 스스로 공평하야
로라 하더니 이제 느되를 주어 쳐느려 되게 하니 지신느
나의 미지 못하를 비로라그러나 상계는 어렵지아니 하니
지부지중의 돕는 거시아니 리요 하더니 각각의 나히과라십

의니르도록그어법을폐치아니후러니맛춤저상의나각이
 이셔그고을의침례제치되어회람의와느니라각이제일흙
 이긋트믈희후여관이라고치니라니공이느려온지두어
 들이되어서더니삼의흐동부의르러가니좁흔누각이중
 중중고셔변이말고과명호며후금뢰를갈앗시니그
 우희나각이라크게써시되글즈기리후자이남죽후더라
 니공이보고심히깃거즈기닐흙이라후더니후련후동
 지셔변으로조스츠나오거늘공이무러와말이곳이무슨곳
 이며니닐흙이어이어그잇노표동지워말이곳은신선의동
 비니닐흙은화양동현이요성명뿐거슨상공의닐
 흙이아니라이노상공의거늘린바강양쓰히백성의닐
 흙이라후거늘공이도라가두르츠스슈리로마자오고공

경후여무러와말그디평성의무슨도술을어덧과디닐흙
 이셔부의올나노표후여무기름지국히후니관이아모
 님도어비스므로셔여러번스양후라가마지못후여곡식
 미후더니노뻘되답후니공이단복후명을마지아니후
 더라그후관의다히변여체의줄후어더니삼일후
 관이얼니며셔화후여가니라

真州商人



真州一巨商販鬻至杭時有挾姑布子之術曰鬼眼者多
奇中忽指商曰公大富人也惜乎中秋前後三日內數不
可逃商懼戎程歸舟次揚子江見一婦仰天大號問焉答
曰妾夫作小生涯有本貲五十緡買雞鵝過江販賣歸則
計本授妾然後持贏易薪米餘貲則付酒家率以為常今
妾偶遺失所授本貲非惟舉家待哺無措亦必被箠死寧
自沉商聞嘆曰我厄於數假鑄金可代吾無虞矣彼乃自
天其生哀哉亟贈錢一百緡婦感謝去商至家具以鬼眼
言告父母召親友永設閉戶待盡父母親友婉譬寬解終
弗自娛踰期無他故復之杭舟阻風泊向者贈錢處登岸
散步值婦人襁負兒迎拜曰自蒙恩救拔數月後幸產得
兒母子二人沒齒感再生之賜商至杭復過鬼眼處驚曰

公在耶乃詳觀形色而笑曰公陰德所致必曾救一老陰
少陽之命矣商異其數捐金爲報

진주대히호큰상고이셔향츠히미호라갓더니이셔
의관상호는사름이이셔호를귀안이라호니상호이귀이
호여맛는비만호니라호연이그상고를골이취와공의상
을보니크게부호니라그러나다만앗가온바는츠히츠히후
삼일너의죽을슈를도망치못호리로다호저를상괴크게
두려급히호상을찰여집으로도라갈시비를두루혀양
조강의니니언덕우희호부인이하늘을우러부르
지며크게호른거늘그연고를무르니답호여와나이지아비
조고마호신이르호미본전오십냥을가지고드러과게우
를무엇호여강건너가팔고도라와본전은혜여침을

맛지고남은거스로별과남을스밥지어먹이일가노쇠일
노애성이호더니이제침이우연이그본전을닐렸는지라
이본전곳업스면일신지인이모다골을썩어나라호호침
의지아비장척의견되지못호리니차라리이물의선죄스
로죽으려호노라호저를상괴라식호여와나는죽금의이
이시비가령여러만금을드려그몸을덕신호여무스호리
라호면니니이호러이어늘죄는조고만죄물노이호여
앗가온목숨을앗츠려호니엇지불상치아니리호호고
급히돈백냥을주어죽지말기를니르니크부인이감격호
여도라가니라상괴의집의모라와부모의상조의말을고호
고친척을부르며치우를모하영결호호호문을다고관정
이안적죽기르기도리니부모와친척이도호말노칼니여의

로 향되 맛참으니 듯지 아니하고 죽기를 과약하더니 이 민족을
 귀한이 지니시되 팔경무수한지라도 시장스함을 인하여 비
 를 띄워 향주로가더니 홀연 푸른을 만나 향주의 본천을
 코올던 부인 만난 곳을 드러 비를 띄우고 언덕의 오른
 건너더니 그 부인이 강보의 아희 첫업고 나와 쥘는 여왕 최
 이공의 슬녀 죽신은 헤를 니스 와 푸어 들은 지닌 후에 아
 희를 나흔 지라 모즈 두 샤름이 죽도록 지성 지은을 감
 격하리 로소이다 그 상피 사향고인 향여 향주의 나르 러 그 상
 즈를 드시츠즈 보니 상피 되 경향 여 왕공이 엿지 그 쥘 아
 니고 향고이 은이 보다 가우어 왕이 은을 던기로 뵈 흠이니 바
 드시 일죽은 리은 제 집과 어린 아희의 목숨을 구하느니 이
 도다 하니 상피 피이 허녀 금으로 주어 샐려하나라

段廿八



紹興丁卯大饑流民滿道饒州富民段二十八積穀數倉
 欲索高價官遣吏借賑許諾次早段見饑民集候退悔不
 發衆方喧噪乃與家人閉門拒之忽天雨晦冥雷火大作
 焚其所貯殆盡段乃震死

소흥년간의 크게 흉년 들어 백성이 유산하는지라 유산한
 부민 단개이 처목식 두어 고를 밟고 중가르 밟고 죄하니
 처의 관가의 처진 흉팔고 죄하니 아전을 보너 여사이라 하니 단
 개이 미허라 구하니 지라 모든 귀민이 관령을 좇츠 단개의 집
 의 모히여 오리게 되리더니 단개는 시늬우 존 뜻이 발하니 문물
 다고 사름을 막노라 방장들네더니 홀연 큰비오며 번쩍 불이
 느러와 밟흔 곡식을 다 타우고 단개 또한 번쩍의 죽으니라

俞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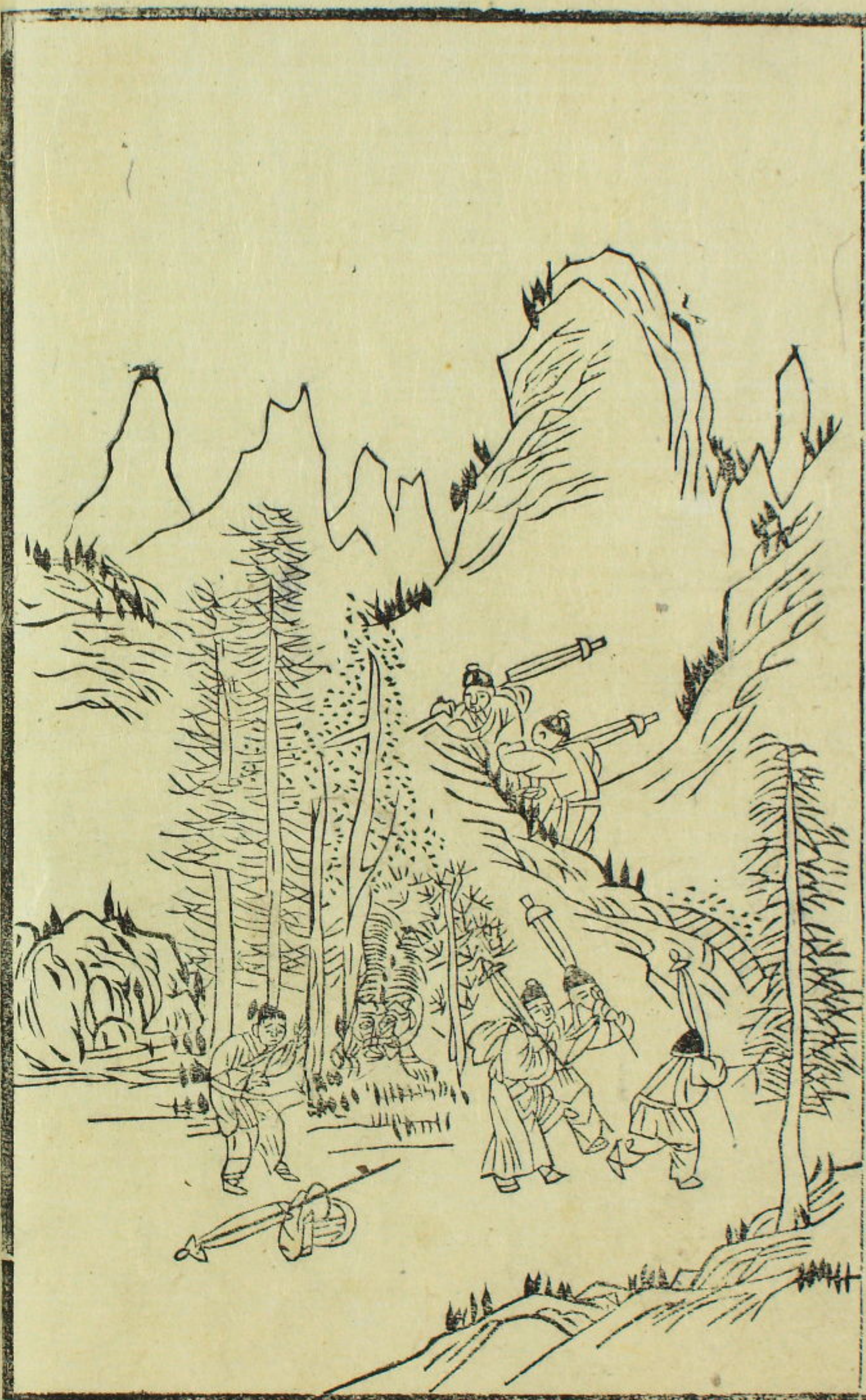


俞翺專造鑽鉛假銀正德戊戌至晉陵賣羊家欲以銀一兩三錢買四羊主人求益不許而去明日主人他出買羊者復來增價一兩八錢買去夫婦怪其增價太多視之乃假銀也怒罵其妻妻忿縊死夫痛之亦縊死不數日翺被迅雷擊死四羊亦死蓋其屍上

유희라 하는 사람이 남으로 은을 만 들어 사람 속이기를 위 어 남을 더니 정년 간의 진능씩히 양과 는 집의 니르러 은 은 냥 쇠돈을 가지고 양네 머리 를 스러하 니 그 주인이 갑 슬 더 달나하 여 팔지 아니하거늘 브리고 도라가 더니 그 이 든 날 드시 니 르러 그 주인이 업는 쇠를 스간하 여 나아가 주인이 쇠를 보고 은 은 냥 여 드래돈을 더하 여 양네 머 리 를 스가지고 가 니라 주인이 도라와 양갑시 더 무만

함글고 이히 더 여 은을 저 쇠이 보니 이곳거 죽은 이라 그 쇠의 속은 은을 노하 여 죽기 를 마지 아니하 니 그 쇠는 은 분함을 나가지 못하 여 목미여 죽거늘 그지아 비더옥 쇠를 위호함은 스스로 목미여 죽은 지라 그 후 수일이 못하 여 유 호는 버그 덕을 마자 죽고 배양이 호함은 함의 죽어 호의 죽어 임의 더 더 버허스더라

木客



嘉靖中宜興漆坊孀婦陳氏有容色一木客見而悅之倚
 漆屢過其家誘餌百端知不可從以數木夜擲其家明日
 以盜聞於官又賄胥隸繫累窘辱以冀其從婦惟日夜禱
 於玄壇曰我家虔祀最久獨不能為我祐乎是夜夢神語
 曰已命黑虎矣木客聞之猶罵癡婦不數日本客與六七
 人入山販木虎從林出隔越數人銜其頭而去

嘉靖年間의 嘉靖 傳히 물드리는 집과 부진 시이서 용되 절
 승하더니 하저 목과는 리기인 이보고 깃거 하여 물드리 물과
 제후고 날마다 그 집의 나가 밤가지로 기인 하되 진시 마
 촌니 좃지 아니 하느니라 이의 계교를 뇌여 제 나무 두어 기
 를 가져 밤의 그 집의 가만 이루고 며 일의 이 남글 장물을
 삼아 관가의 고하 여 도적으로 노고 조회되 를 만히 베풀 관

속을 끼고 진시를 무슈이 곧 용하여 제 뜻을 좃도록 피박하
 니 진시 주야로 올며 집의 의혼은 신령의 계발어 외날 우리 지비의
 이글죽 정성으로 제스함이 가장오리 거늘 엿지 날을 의하
 여 조음어 어바노고 하더니 이 밤 꿈의 신이 이 날 내와 리의
 김은 밤을 명하엿노라 하니 진시 그 뜻을 아지 못하노고 목
 기은 오히려 수지려니로 취니로 모로논 어린 제 집이라
 하더라 슈일이 못하엿고 목 기이 동고 죽치리 인을 들리
 고 저목을 버히려 집흔 산중의 르러 갔더니 슈 풀속
 으로 석호를 면하노 김은 밤이 외라 주어 사름은 지
 브리 그 목 기은 물어 가니라

金陵船戶



中州金相攜貨往金陵市絹舟人窺貨殺相投於江乃賣
舟買屋住岸上遂成富室後生一子甚鍾愛稍長卽謀殺
其父至年二十殺機益急父不解故求神降乩得詩曰八
月西風何太惡楊子江心波浪作二十年前卽此人請君
自把心頭摸此人心知其故乃以家事盡付其子而自行
丐他處

중쥬쥬히김상이라하는사람이보화를만히가지고비단
을무여하러금능으로가노라강을천너더니그비스공이
김상의가진저물을람하여모진몸이나는지라의의김
상을죽여강물의너코비를팔아집을스고언덕우희
거하니드여부지되여서더라그후의흔아들을나하심
히사랑하더니적이지라미곳제아비를죽이기로셔하

더니나히이십세의니르러는죽일몸이다우급흔지라
그아비그연고를아지못하신령을형하여필점음은
구흔뒤필점음의일슈시를백스나갈와시되팔의필셔
풍이엇지그리모진고양강가온티물결이니러도다이
십년전의곳이사람이나형전되그되는스스로음은지
히보라하여서거늘이의그연곤죽알고가산을모다그아들
을쥬어맛지고좌는형하여드른곳의가빌어먹으니라
이느죽인사람이도로혀그아들이되여그원슈를잡히려
하미이러라

徐淹



廬州徐淹常販牛數十渡江風浪忽作羣牛戰慄徐禱天
 免覆誓不再販即在本本地賤價賣人耕田呼拜不已忽風
 定泊舟值倭亂官買牛急徐貪心復萌計賣與官屠可得
 重利方將牛牽過屠舟牛復戰慄忽風浪復作徐遂覆沒
 於江中

녀유작히쳐엄이라흐는사람이잇쳐상히소장스로의업
 흐더니일로는소슈사비필은비의식고강을건널시흐를여
 풍낭이더작흐며모든쇠일시의떨거늘쳐엄이크게접흐여
 하늘과비러드시소장스질아니흠으로밍세호고노소르르마
 르쳐발원흐되푸쥬의과다말고헛헛은갑스로농인의
 게팔나라흐여비기르른마지아나흐니그제야브람이정흐
 고비어비치기르른면흐쳐서더라비를쇼어던의드이르

소르르골어능가의 팔녀 허너이셔의 맛츄음왜란이나
 므로관가의 처군스호제홀로소르르금히무여허니소의
 가담시가장러허지라셔엄이드시람심이니러그땡쳐호
 븐니소스스로혜오티관가푸츄의 팔면후가르르밖으
 리라허고이이그소르르이풀어소잡는비의올니그쇠드
 시헐며홀연풍낭이티작허여셔엄의비엄더지니강
 중의백적죽으니라

白元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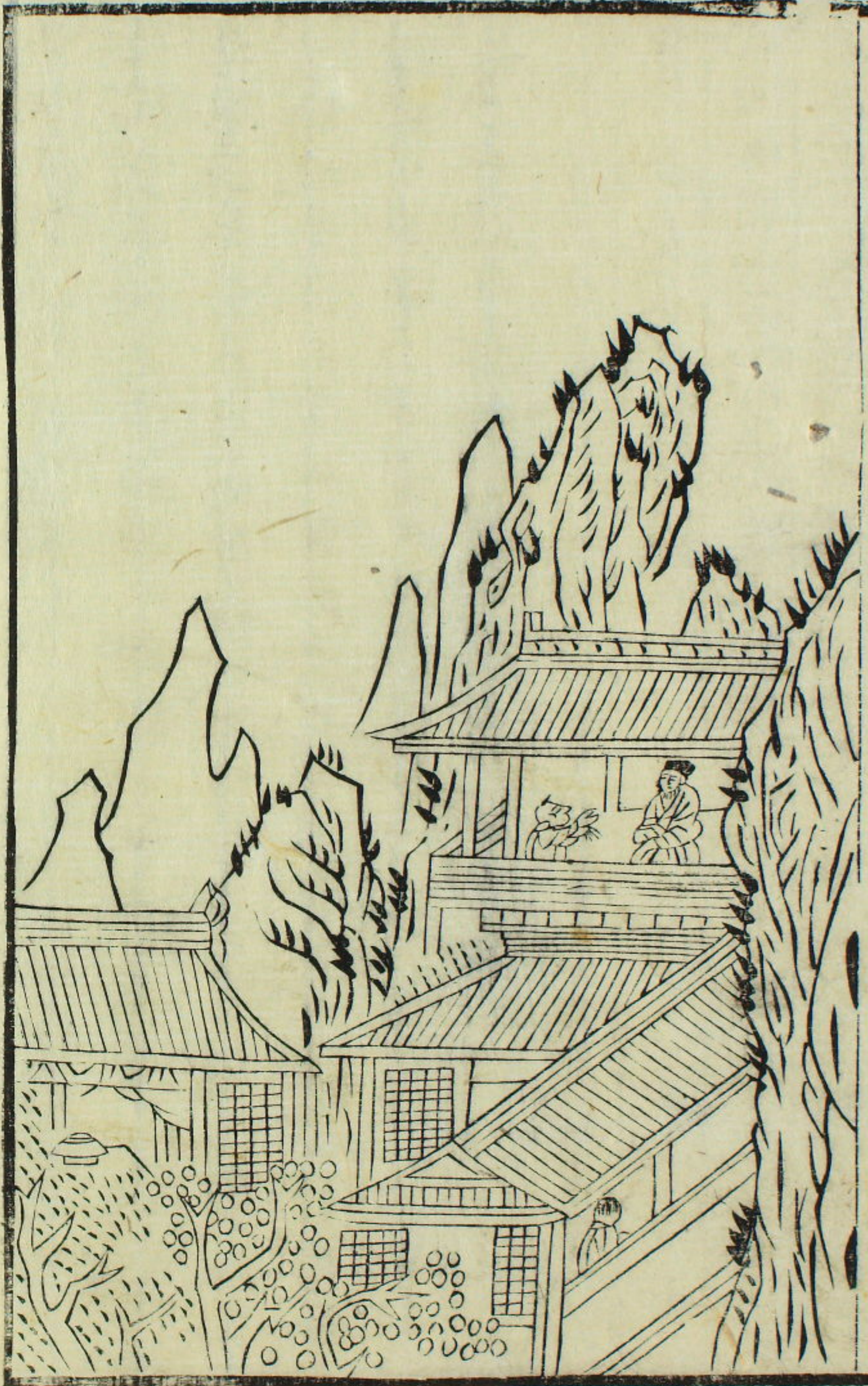


白元通欠楊筠錢五貫四百文筠死昧其事白逾年亦死
生筠家爲驢一日筠子乘之入市忽作人語曰我是白元
通欠爾父錢五貫四百文故如是今南市賣麪家亦欠我
錢正如其數速賣我於彼債價償也子如言賣之不三日
而驢死

네적의빅원통이라하는사람이양권의돈오십스냥을
지고잡지못하엿더니양권이죽으미인하여그날을숨
기고발설치아나하엿더니그후오리지아나하여빅원
통이또하죽은지라그후이양권의집의다녀나서귀
되엿는지라일일은권의아들이그귀를다고죄지거
리로가더니그귀를연사람의말은하여너르되나
빅원통이라네아비의돈오십스냥을지고잡지아나하

엿시므로네집은귀되엿는니이제남편죄지국슈과는집
이또하나의돈을지고잡지아나하여그귀또하오십스냥이
라설니날은그집의팔아모든빚을갈히게하라하거늘
권의아들이상이덕여그말되로귀를가죄그집의팔
앗더니스흔이못하여그귀죽으니라이는죄의지은
돈은바아죄진빚을잡힘이라

湖廣盛某



湖廣盛某素險惡人號黑心家頗殷實欲造堂樓五間苦地窄狹不能廓充數晚人與鄰人姓張者言張不允盛密令大盜指張張遂誣服死於獄母與妻以地售之樓成得子六歲尚不能言一日天暑盛坐樓中其子匍匐上樓盛指之曰吾為子孫計故爾設謀今汝如此愚蠢奈何奈何其子忽厲色作聲曰爾何苦為此我非張某耶爾以無辜殺我奪我之居我此來方圖報耳盛大驚望後一倒而沒其子蕩盡家業身亦死

호광은 상고성개이스니 본디 성품이 험악하고 개심히부흐지라 집의누각을육간을짓고져하나더히좁음으로조사를음을시려니 옷집장가의게집터를청하되장개듯지아니호는지라성개가만어 옥의가치인큰도적을외여장가를를무함하되동당이라호여옥

중의죽게하고장가의어미와안히를희와그러를어어누각을
 지깃더라고후후아말을니하니각외가되도루능히말하지못
 함은지라일후은더의를피하여누각의올나안졌터니그아히
 포복후의올나오거든기벽을치며한식후여왕니조손을
 의능여계포를베피이자를닐엇거든네저러듯우견하니엇지
 한후잡자나리오후나그아들이홀연크게소리후여죽지적왕네
 엇지이리괴롭게후엇는고나스곳니스집장가라네무단이
 죄업스날을죽이고나스너를아스시미네네가타여나
 기는원슈를감하려후미로라후니형개이말을듣고디
 정실식후여뒤흔바라고후번것구려적죽으니그아들
 이그가엄을모도다양지후후또후죽으니라

